

## 제2회 2014창원조각비엔날레 - 달그림자

최태만(2014' 총감독/ 국민대 교수)

### 1. 개요

2014창원조각비엔날레는 '달그림자(月影)'를 주제로 2014년 9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46일간 돌섬·마산항 중앙부두·문신미술관·창동 및 마산합포구 원도심 일대에서 열렸다. 국고 5억과 시비 11억이 투입된 이 비엔날레는 최태만 총감독과 김지연 큐레이터의 기획으로 아시아의 10개국에서 42명(팀)의 작가가 참가했다.

### 2. 주제 "달그림자(月影)"

**"달이 온 세상을 비추고 예술은 달그림자처럼 세상 속으로 스며든다."**

내가 총감독으로 선임된 후 마산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마산역 앞의 같은 내용을 서로 다르게 표현한 조형물이었다. '가고파'로 유명한 이은상 시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각기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나는 무엇보다 먼저 마산부터 공부하고자 했다.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도시의 지형으로부터 3.15부정선거에 대한 마산시민들의 항거, 몽고간장 유적지, 산업화시대의 유산에 이르기까지 마산은 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비엔날레를 단지 동시대 미술의 축전으로 유도할 것인가, 아니면 국내에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여타 비엔날레와는 다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를 고민한 나는 후자, 특히 '마산 읽기'와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그래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말년에 지금의 마산인 합포에 머물며 세운 월영대(月影臺)와 무학산과 돌섬에 남아있는 최치원 설화에서 착안하여 주제를 '달그림자'로 정했다. '달그림자'는 최치원은 물론 그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마산에 바치는 오마주이며 이 용어가 암시하는 낭만적이고 문학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동시대 예술이 지향하는 '삶 속으로 스며드는 예술'에 대한 메타포로 채택했다. 아울러 이 주제는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의 방향과 목표를 함축하는 것이었다. 마치 하나의 달이 세상을 비추듯이 "달그림자"는 예술이 마산 앞바다에 내려앉은 달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치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희망을 상징한다. 따라서 "달그림자"는 덧없이 사라져버릴 그림자를 좇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처럼 우리 현실에 연결된 예술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3. 추진방향

- 국제적 수준의 비엔날레에 접근
- 창원조각비엔날레의 고유한 정체성 구축
-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창원조각비엔날레를 시민참여형 문화예술축제로 정립

- 아시아의 독특한 조각비엔날레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 마련
- 청년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험적이고 개방적인 비엔날레로 유도

#### 4. 전시장소

##### 1) 돌섬

기존의 설치작품 외에 더 이상의 영구설치 작품을 추가하지 않는 대신, 버려지거나 방치된 건축 구조물을 생태환경복원의 차원에서 관람객의 쉼터로 재구성하고, 마산의 역사와 문화, 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과 건축적 기능을 갖춘 조형물을 배치하여 관조의 대상으로서 조각보다 작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 2) 마산항 중앙부두

마산항 중앙부두를 2014 창원조각비엔날레의 메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공공미술 성격의 조형물과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작품으로 설치함으로써 중앙부두 일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쉼터이자 산책로인 중앙부두를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면서 동시에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예술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 3)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동시대 아시아 미술의 흐름과 특징을 보여주는 수준 높은 조각과 설치, 마산의 역사와 도시적 성격을 볼 수 있는 미디어아트를 전시하여 시민들의 예술 향유권을 신장하고자 했다.

##### 4) 창동예술촌과 추산동 일대

조각이란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도시재생과 공동체 미술을 지향하는 다양한 동시대 미술을 원도심 곳곳에 설치하여 비엔날레의 특징을 강화하고자 했다.

#### 5. 참가작가

##### • 국내작가

강영민, 권민호, 김월식, 김형수, 박경주, 박승모, 배달래, 옥정호, 이은우, 이원호, 이정희, 임옥상+승효상, 은주+한량맨션, 정만영, 정혜련, 조전환, 천경우, 천대광, KKHH(강지윤+장근희), Flo Maak+CUPhoto, 한원석, 허태원

##### • 국외작가

차이지송(Cai Zhisong, 중국), 인쉬젠(Yin Xiuzhen)+송동 가족(중국), 왕중(Wang Zhong, 중국), 취이셴지(Cui Xianji, 중국), 리잔양(Li Zhanyang, 중국), 쉬레야스 카를레(Shreyas Karle, 인도), 안자나 체티(Anjana Chetty, 인도) 하르샤(N.S. Harsha, 인도), 쩌 루엡(Tran Luong, 베트남), 냐산콜렉티브(NhaSan Collective, 베트남), 안테나(Antenna, 일본), 키타가와 타카요시(Kitagawa Takayoshi, 일본), 첸칭야오(Chen Chin Yao, 타이완), 도르지데렘 다바(Dorjderem Davaa, 몽골), 헤리 도노(Heri Dono, 인도네시아), 사라 라바(Sara Rahbar, 이란/미국), 수파콘 니사타분두(Suppakorn Disatapundhu, 태국), Hamra 함라 아바스(Abbas, 파키스탄). (42명(팀), 10개 국가)

## 6. 평가

2014창원조각비엔날레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비판적이었다. 무엇보다 중앙부두를 중심으로 돌섬과 원도심 일대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동선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 관람의 피로도가 높았다는 지적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예측하여 지도와 함께 작품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고 전시장소 앞에 일련번호를 붙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으나 외지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는 도심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전시공간을 찾아다니는 일이 매우 불편했을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형 작품이 많았기 때문에 비엔날레가 끝난 후 대부분 철거, 폐기하여 문신국 제조각미포지엄과 예년의 비엔날레에 비해 영구설치작품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그러나 도시 전체를 전시장소로 활용하는 카셀 도큐멘타나 윈스터 조각프로젝트, 유럽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개최되는 마니페스타의 경우를 볼 때, 나아가 전용관이 있는 광주비엔날레나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해 왔던 부산비엔날레에 비해 마땅한 대규모 전시공간이 없었던 당시 마산의 문화환경을 고려할 때 2014년의 경험은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한다. 특히 풍부한 이야기를 지닌 마산의 도시적 특성과 도시재생의 연속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도심 지역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했음도 밝혀둔다. 끝으로 중앙부두에 설치한 사일로의 파편을 이용한 조형물은 마산의 근대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므로 영구설치해야 할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흉물처럼 비치지 모르지만 사일로는 마산의 근대화를 상징하는 유물임이 분명하다. 그것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조형물은 마산 앞바다를 내다보는 창이자 사일로로 대표되는 마산의 근대화를 기억하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있음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사일로를 철거했다고 역사마저 철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